

고전소설 속 긍정적 가부장의 형상화를 통해 본 담당층의 인식 차이

이지하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고전소설 전공
ljh129@skku.edu

I. 머리말

II. 긍정적 가부장의 형상과 내적 분화

III. 가부장상에 투영된 담당층의 인식 차이

IV. 맺음말

I. 머리말

유교 이념에 기반한 종적 가부장 질서를 체제화하였던 조선 사회를 온당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의 권위와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교적 가부장제는 부모 자식 간의 수직적 효(孝)의 논리를 국가와 신하 혹은 국가와 백성 간의 충(忠)의 논리로 확장하고, 삼강오륜(三綱五倫)에 기반한 인륜(人倫)을 내세워 개인보다는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관계성을 강조했던 유교적 체제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제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 위치한 가부장은 유교적 가치를 현현하는 개인적 인격체임과 동시에 가문의 유지, 발전을 주도하는 존재로서 유교 이념에 기반한 집단의 대표자이기도 했다. 특히 가족제도와 정치제도를 동일한 원리 속에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던 당대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한 가문의 대표자로서 가부장이 지니는 의미는 당대 체제 및 그 체제를 유지시키는 이념적 가치와 필연적인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부장이 지니는 이러한 권위와 상징적 의미는 그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통해 극단적으로 표출된다.¹⁾

조선조의 가부장제는 체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위계성과 남녀의 유별성에 입각한 역할의 분담과 보완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구축되었다.²⁾ 그 성격이 일방적이고 종속적이었는지, 아니면 상호 보완적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이론(異論)이 존재하지만³⁾ 가부장제가 남성 중심적 사회 질서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체제 질서 유지에 가부장이 국가체제와 가족체제를 이어주는 중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상층가문의 경우 가부장의 권위와 역할은 지배체제와 이념에 대한 긍정적 수용 태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고전소설 속에도 이와 같이 유교적 이념의 충실한 구현자로서의 가부장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상층 별열가문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국문장편소설과 충신 가문의 영웅적 주인공이 국가와 가문의

1)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329쪽.

2) 이순형,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유학적 재해석」, 『韓國學報』 71(일지사, 1993), 113쪽.

3) 조혜정의 경우 전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가족 내 남녀관계를 차등적으로 파악하여 남성의 여성 지배를 논의한 반면, 이순형의 경우 후자의 입장에서 가족 내 상하, 남녀의 관계가 상호 견제와 보완의 기능을 수행한 점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조혜정, 『한국의 남성과 여성』(문학과 지성사, 1988); 이순형, 위의 논문 참조.

위기를 해결하는 단편군담소설이 대표적이다. 이 두 가지는 고전소설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상층지향성과 체제 옹호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보수적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어왔다. 따라서 당대 지배체제에 입각한 가문의 설정과 그 수장으로서의 가부장의 형상화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두 소설 유형이 상층 가문의 바람직한 가부장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공통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실상 속에서 파악되는 구체적 형상화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원리 속에서 가부장의 형상화는 유교적 이념과의 친연성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작품 속에 그려진 가부장상의 차이를 통해 담당층의 층위와 인식 차이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상층 지향적 의식을 드러낸다는 표면적 공통점 이면의 보다 본질적인 차이점에 주목하고 그것이 작품 유형에 따른 담당층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긍정적 가부장의 형상과 내적 분화

고전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부장상은 크게 두 부류로 양분된다. 하나는 가문구성원이나 사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가운데 가문의 중추 역할을 하며 존경을 받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이와 반대로 가부장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된 채 조롱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이때 양자를 구분 짓는 기준은 작품 안에서 가부장이 지니는 위상이라 하겠는데 이는 당대 사회 속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에 대한 평가, 가부장에게 부여된 사회적 혹은 이념적 위상과 가족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실제적 위상 사이의 간극,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드러나는 담당층의 가치관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요소로서 주목될 만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긍정적인 가부장상을 형상화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구체적 양상과 내적 차이를 살피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고전소설의 하위 유형 중에 권위를 인정받으며 존경받는 대상으로서

가부장을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국문장편소설과 단편군담소설이다. 이 두 유형은 여타의 소설들에 비해 체제수호적인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편인데 이러한 지향성으로 말미암아 지배질서와 지배이념에 충실한 가운데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주인공 가문은 충과 효의 논리로써 체제질서를 수호하는 모범적 모습으로 그려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문의 가부장들은 정치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흠결 없는 존재로 미화되곤 한다. 예외적으로 가부장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가내의 분란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제1세대 가부장의 잘못을 제2세대의 가부장이 시정하고 보완하여 더욱 모범적인 가문을 완성해나가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주인공 가문을 통해 유교 질서를 바로잡아 가는 내용을 그려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

이들 주인공 가문은 대개 개국공신의 후예나 충신열사의 후예로 대대로 당대 체제의 수호자로서 정치권에서는 요직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물러나는 처사로서의 삶을 통해 도학의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인물들을 이들의 적대자로 설정해 갈등구조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주인공 가문에 부여함으로써 이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주인공 가문이 지향하는 가치가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영향력의 정점에 위치하는 것이 가문의 수장인 가부장들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통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문맥을 통해 육화된 가부장의 모습은 단일하게 규정짓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이들이 유교적 가부장제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자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가족이라는 구체적 관계 속에서 '남편' 혹은 '아버지', '할아버지'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교적 가부장제를 대표하는 이념적 존재로서의 가부장과 더불어 실제적 가족관계 속의 실존적 개인으로서의 가부장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계 속에서 구체성을 획득하며 재현되는 가부장의 모습을 통해

4) 대표적인 경우로 <유효공신행록>과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유정경의 잘못된 판단으로 장자계승권을 놓고 가내의 혼란이 야기되지만 결국은 군자의 덕성을 지닌 장자 유연이 충심과 효심으로 가문을 굳건히 지켜냄으로써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이상적 가장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념적 구속력을 넘어서는 당대인들의 가족관이나 인간관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구체성이 결여되는 경우 역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성의 유무는 담당층의 경험치를 반영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가부장을 형상화 내에서도 세부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기저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원인이 작동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우선 그 차별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이상적 가부장상의 현실적 구현

가문을 배경으로 삼아 주인공의 고난과 활약상을 그려내는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주인공 세대 이외에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문제를 동시에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것이 가문의 영광을 지속하고자 하는 담당층의 지향의식과 관련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미 확고한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상층 별얼가문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이러한 지향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주인공 가문은 세대 명문가로서 유교적 명분에 입각한 모범적 삶을 꾸려나가고자 노력하는데 그 중심에서 가족구성원을 이끌어나가는 존재가 집안의 최고 어른인 1세대의 가부장이다.

〈현씨양옹쌍린기〉의 현택지, 〈옥원재합기연〉의 소송, 〈완월회맹연〉의 정잠, 〈현몽쌍룡기〉의 조숙 등이 그러한 1세대 가부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성숙한 어른으로서 자식 세대의 미숙함이나 일탈 행위를 계도하고 가문 내외의 부조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으로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충신으로서의 절개를 보여주고, 가정적으로는 집안 대소사의 결정권자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자식 세대와 손주 세대의 롤모델 역할을 하며 유교이념의 이상적 구현자로서 대내외적인 존경을 받는 것으로 그려진다. 즉, 주인공 가문이 표상하는 유교적 모범이 이들 가부장을 통해 상징적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하겠다.

현택지는 송나라 인종 시절에 이부상서의 벼슬을 하고 있으며 사람됨이 인후정직(仁厚正直)하여 일세의 기남자로 칭송받는다. 소송은 지극한 효자이며 국가의 대신으로서 송나라 신종연간에 시행된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다가 유배를 가게 된다. 정잠은 명나라 영종 시절의 재사(才士)

로서 뛰어난 용모와 문장력을 갖추고 어린 나이에 재상의 반열에 올라 오래도록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청렴하여 세상의 칭송을 받는다. 조숙은 송나라 진종 시절의 승상으로서 일찍이 등과하여 관인정도(寬仁正道)한 어진 재상으로 명망이 높으며 편모에게는 지극한 효성을 다하는 효자이다.⁵⁾

이처럼 작품 속 주인공 가문의 가부장들은 모두 뛰어난 재주를 바탕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충심으로 왕을 보위하고 민생을 돌보는 어진 관료일 뿐 아니라 부모에게는 효심이 지극한 효자들로 형상화되고 있다. 현택지와 조숙은 정치적으로 별다른 부침이 없는 것으로 그려지고 나머지 인물들은 국가가 혼란한 와중에 반대파에 의해 정치적 시련을 겪는 것으로 그려지는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정치적 시련 역시 이들의 충의와 절개를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하며, 이들 가부장의 인물됨에는 공통적으로 충신효자로서의 유교적 이상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가문 내외적으로 구성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이들 가부장의 존재는 해당 가문의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천명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문 내외적 갈등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복선화음(福善禍淫)의 상식이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구심점이 된다. 이처럼 이상화된 가부장들에게 인간적 약점이 될 만한 흠결은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작품 논리 속에서 이들은 이미 완성된 인격체로서 제시될 뿐이다.⁶⁾

5) 그중 〈현몽쌍룡기〉의 가부장인 조숙의 예를 대표적 사례로 인용해보기로 한다. “대송 진종시절의 명승상 평남후 조공의 명은 숙이오 자는 원철이니 개국공신 무혜왕 조빈의 손이오 태혹스 조명의 직라. 조년등과하여 풍년과 괴절청망이 숙야근뇌하여 관인정도로 군상을 돕스오매 치국목민과 니음양순스시하는 현상이라. 치정이 한시 제갈노 가극히거늘 그 괴상이 엄숙하며 얼골이 초독갓고 사름되든 출일화풍갓고 식식흔 절개는 설만궁항의 고송이 독넙함갓고 공이 복당이 가죽지 못하여 엄정을 조별하고 편모를 맞드려 동측흔 성회 증삼을 썩로더라.” 〈현몽쌍룡기〉 권지일.

6) 작품 논리 속에서서는 단서를 단 것은 비록 작품 속에서 이들을 무결점의 도덕적 권위자로 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맥락 속에서는 이들의 도덕적 업속주의나 과도한 결벽증 등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완월회맹연〉의 정잠이 동생에게서 적장자로 입양한 인성에게는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이면서도 재취한 부인 소씨와 소씨 소생의 쌍둥이 아들들에게는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며 애정을 보이지 않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작품 속에서는 정잠의 이러한 행위가 소씨의 품성이 간악함을 눈치챈 데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지인지감의 해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잠의 냉대가 소씨와 그 아들의 악행을 더욱 부추기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람의 기질을 꿰뚫어보는 것으로 미화되었던 정잠의 행위가 선입견으로 상대를 재단함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이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한 갈등의 해결과정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주체는 2세대인 자녀들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 가부장은 그러한 자식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모범적 준칙을 제공하는 본보기이자 자식 세대의 미래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도덕적·이념적으로 완결된 인격체로 그려지는 국문장편소설의 가부장들이 요약적 언술에 의해 이상화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속의 구체적 행위들을 통해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가) 홀연 칭병하여 순여의 미츄믹 스스로 천명이 득함을 썬드라 슬허히디 아니하며 늘나디 으니히디 청계형데 츠황민박하미야 엇지 형언하리오. 듀야 불탈의디하고 시병하는 정성이 상편을 감동하는 비로디 공의 쉬 던흔지라 엇지 능히 이리오. 일당디의 상셔곤게 의형이 환탈하여 묻져 위티로오니 [...] 상셔곤게 모전의 망극한 식을 나트디미 불가하여 즉위화식하고 이성 디왈 대인이 성취 여러날 못지 못하시나 디단흔 중휘 엇디 아니시니 겁히 넘너하실 빅 아니오 희으 등이 일시 초민하온들 엇지 폐식하도록 하리잇고.⁷⁾

(나) 공이 고향여 물너가라 아니하고 냥즈를 다리고 밤을 지닐식 비록 외모의 엄함을 뵈나 어린 아히 처음으로 등장을 입으물 앓기는 모름이 편티 아나 잠이 오디 아니 하느니라. 고요히 누어 으즈의 거동을 보니 흥이 야야의 취침하신 후 비로소 웃낙히 금니를 츠즈 버기의 쓰러지미 오리디 아나 잠드러 몽롱한 가운데 통성이 의의하고 썬여실 제는 괴운이 세춘고로 알프를 참으나 잠들물 인하여 즈연 통성이 의의하니 공이 누우쳐 익런지십미 뉴동하매 이에 니러나 친히 그 옷살 벗겨 누일식 상처를 슬피니 가티 상하여 뉴혈이 돌지하고 혼흔하여 몸을 만지는 줄 모로느니라. 공이 크게 앓겨 년하여 것히 누이고 어로만져 잠을 일우디 못하더라.⁸⁾

(다) 상제 츠후는 무심치 아나 츠으의 금슬을 십분 상심하야 슬피디니 쥬쇼제 축상하여 숙쇼의셔 치류하디니 상제 문병진맥하고 그 비상흥점을 보미 싱을 불승통한하여 의약친집하여 쇼제 쇼성후 후 싱을 불너 다만 닐오디 고인은 부피 스랑하죽 견미라도 후디하거늘 너는 아비 말을 흥모곳치 너겨 어진 처즈를 박디하미 비상지원의 맞게 하니 쥬시는 숙네라 원한치 아니려니와 내게 적불선이 되리니 네 얼굴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⁹⁾

7) 〈완월회맹연〉 권지일.
8) 〈현몽쌍룡기〉 권지일.
9) 〈현씨양옹쌍린기〉 권지이.

(가)에서는 정잠과 정삼 형제가 부친이 위독해지자 식음을 전폐한 채 주야를 곁에서 떠나지 않고 간병을 하느라 몸이 상할 지경에 이르지만 모친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얼굴색을 부드럽게 고치고 부친의 병세가 대단치 않은 것처럼 위로하며 염려를 덜게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상세히 그리고 있다.

(나)는 조숙이 쌍둥이 아들들을 크게 꾸짖은 후 남몰래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다. 조숙은 큰아들 용홍이 어린 나이에 기녀와 동침하자 방자한 죄목으로 태장을 가하고, 작은아들 용창에게도 형을 잘못 보필하였음을 크게 꾸짖어 엄부의 모습을 보인다.¹⁰⁾ 그러나 밤에 이들을 데리고 자면서 심하게 매를 맞아 잠결에 앓는 소리를 내는 용홍이 측은해 손수 옷을 벗겨주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자식이 방자해질까봐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속으로는 애처롭고 걱정스러워 함께 아파하는 부성애(父性愛)를 매우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는 현택지의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아들에 대한 훈계를 그리고 있다. 현택지는 작은아들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눈치채고 있던 차에 며느리 주소저가 과도하게 마음을 쓰다 병이 나자 손수 맥을 짚어보고 약을 지어 간호한다. 가부장인 현택지가 자식들의 금슬을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을 통해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배려, 아들에 대한 훈육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들 가부장이 근엄한 도덕의 화신으로서 인간미가 거세된 채 이념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처신의 방법을 달리 할 줄 아는 극진한 효자, 자식의 앞날을 위해 엄하게 야단을 치면서도 속으로는 가슴 아파하는 자애로운 아버지, 세심하고 자상한 시아버지 등의 현실적 얼굴을 가진 일상인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부장에 대한 칭송과 미화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육화되는 가운데 사실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치적인 상대를 대할 때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 간신의 무리에게는 준열한 비판을 가하면서 왕에게 직간(直諫)을 아뢰는 지조를 보여주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배척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력을 발휘할 만한 상대에게는 군자로서의 넓은 도량을

10) 이 작품 속 쌍둥이 주인공의 경우 초반에는 조용홍과 조용창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다가 중반 이후 조무와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베풀곤 한다.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서 정적(政敵)의 인간적 장점이나 재주를 인정해주기도 하고, 줏대 없이 흔들리는 소인배의 상황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아량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¹¹⁾

이처럼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다방면의 모범적 행위와 태도를 통해 가부장의 권위를 추상화된 이념의 차원이 아니라 일상 속의 실제적 사례로서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힘을 발휘한다. 현실적 맥락에서 구체화되는 가부장의 모범적 행위들은 차세대의 가부장으로 성장해나갈 자식 세대의 불완전성을 계도하여 유교적 이상의 구현자로서 성숙해나가도록 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국문장편소설에서 주인공들은 외부적 시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아직 인격적으로 미완인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의 잘못이나 실수에 의해 다양한 갈등 상황을 맞게 되는데 이들이 그러한 미숙함을 극복하고 군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미래상 혹은 본보기로 제시되는 대상이 바로 가부장들이다. 즉,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가문의 중추 역할을 하며 도덕적 권위로서 유교적 이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부장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그 영향 아래 자식 세대 역시 모범적인 가부장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2. 명실(名實)의 불일치와 가부장상의 약화

국문장편소설과 더불어 주인공 가문을 명문가의 후예로 상징하고 가문의 위기와 회복을 그리는 대표적 유형으로 단편군담소설을 들 수 있다. 이 소설들 역시 유교적 가부장제 이념에 입각한 국가관에 기대어 주인공 가문을 형상화하는 가운데 이념적으로 충효의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편이다. 따라서 국문장편소설과 더불어 지배이념의 자장 안에 강하게 견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문의 실상을 형상화하는 데는 국문장편소설과는 여러모로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가 담당층과 소설 양식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임은 그간의 연구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상징적 존재인 가부장의

11)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태학사, 1998); 이지하, 『옥원제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등을 통해 주인공 가문의 군자들이 정적이나 소인의 무리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려는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상화를 통해 그 구체적 양상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먼저 작품 서두의 가부장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기로 하자. 유형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대부분의 고전소설들이 서두 부분에서 주인공을 소개하기 이전에 가계와 부모 세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주인공이 독자적 개인으로서보다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인식됨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주인공의 정통성과 이의 후대적 계승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개 영웅적 주인공의 고귀한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 명문가의 후예임을 강조하고 주인공 부친의 정치적·도덕적 위상 역시 상당하다는 언술로 주인공 가문을 미화하고 있다.

〈유충렬전〉의 유심은 명나라 개국공신 유기의 13대손이자 전임 병부상서 유현의 손자로서 세대명가(世代名家)의 후예이다.¹²⁾ 그는 정언주부의 직위를 지니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정한담 일파와의 대결에서 패하여 유배를 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조웅전〉의 조정은 송나라의 개국공신으로 남만이 황성을 침범했을 때 홀로 천자를 보호하고 적을 토벌한 공으로 금자광녹태후 좌승상에 봉해진다. 그러나 간신 이두병의 참소가 시작되자 스스로 약을 먹고 자결해버리고 만다. 〈소대성전〉의 소양도 소현성의 후예로서 대대로 공후작록을 누리는 가운데 병부상서를 역임한다. 그러나 벼슬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간 후 소대성이 10세가 되었을 때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만다. 〈홍계월전〉의 가부장인 홍무의 가계 역시 대대 명문거족으로 본인은 명나라 성화연간에 이부시랑의 벼슬을 하다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삭탈 관직되어 고향에 가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후 홍무는 장사랑의 난에 연루되어 처자식의 생사도 모른 채 벽파도로 유배를 가게 된다. 〈방한림전〉의 방공¹³⁾은 명나라의 유명한 학자이자 충신인 방효유의 후예로서 선조의 충열도덕을 본받아 청정한 삶을 살다가 방관주가 8세 되었을 때 부부가

12) 〈유충렬전〉은 단편군담소설의 대표작으로서 주인공의 가계를 묘사하는 데도 전형성을 잘 드러내고 있어 이 작품의 본문을 예시로 제시한다. “잇씨의 조정의 한 신하 이스되 성은 유요 명은 심이니 전일 선조황제 기국공신 유기의 십삼대 손이요 전병부상서 유현의 손자라 세터명가 후예로 공후작록이 써나지 안이하더니 유심의 벼살리 정언주부의 잇난지라 위인이 경직하고 성정이 민첩하며 일심이 충성하야 국록이 증중하니 가산이 요부하고 작법이 화평하니 세상공명은 일딴의 제일이요 인간부귀난 만민이 충송하되 다만 슬하의 일결 혈육이 업시미” 〈유충렬전〉 권지상.

13) 〈방한림전〉의 경우 주인공 부친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는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함께 세상을 뜨고 만다.

위의 가부장들은 공통적으로 명문거족의 일원으로 그려지고 있으면서도 그리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이들의 정치적 입지가 확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부침을 겪다가 유배를 가거나 심지어 자살을 감행하기까지 한다. 소양인 경우 본인이 벼슬을 내놓고 낙향한 것으로 그려지지만 요절하여 작품 문면에서 사라지며 방관주의 부친의 경우에는 아예 정치적 이력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이는 문면에 그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만큼 가부장의 위상이 약화되었다고 하겠다.¹⁴⁾ 요컨대 단편군담소설 속 가부장의 사회적 위상은 국문장편소설의 가부장들이 조정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야에 물러나 후학을 양성하며 도학자로서 명성을 날리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두드러지는 점이 가부장의 부재(不在)이다. 이들은 모두 주인공이 아직 어린 나이일 때 유배를 가거나 세상을 떠나 주인공 가문에 가부장의 부재상태를 야기함으로써 가문이 몰락하고 가족구성원들이 온갖 역경을 겪게 된다.¹⁵⁾ 이로 인해 단편군담소설의 주인공들은 국문장편소설의 주인공들이 가부장의 훈교 아래 도학군자이자 충신효자로서의 인격을 완성해나가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들에게는 가부장의 부재로 인해 롤모델 역할을 해줄 만한 존재가 없다. 따라서 가계계승의 의무만 있을 뿐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전수받은 바 없이 오롯이

14) 이와 같은 요소를 이 작품이 전형적인 가계계승의 인식을 탈피하여 좀 더 현실적인 맥락에서 새로운 소설 양식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주인공인 방관주가 자신에게서 대가 끊길 위기를 양자 낙성을 통해 극복해내는 점과 이 작품이 새로운 인식에 의거하여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영웅소설이 지닌 통속성을 극대화하는 데 치중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보다는 대중화·통속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당층의 확대를 고려할 때 이 작품의 담당층이 영웅소설의 유형성을 반복하는 가운데 작중 현실이 실제 상층의 삶과는 괴리된 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5) 이 부분을 통해서도 단편군담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가문의 모습이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 유형의 작품들이 세력을 잃고 몰락한 계층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작품 서두의 언급처럼 이들의 가문이 대대 명문거족이라면 가부장의 부재만으로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별명가문들의 위상이 혼인과 교우관계에 의한 세력의 확장 속에 공고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움을 받을 만한 일가친척이나 지인들이 없어 홀로 세상과 맞닥뜨려야 하는 주인공의 처지는 이들을 명문거족의 후예로 그리는 작중 언술이 실상과 부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새로운 가족을 생성해냄으로써 가문을 재건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국문장편소설의 주인공들이 부친으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가부장권을 이어받아 이미 확립된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고 번영시키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뿐만 아니라 가부장의 부재로 인해 가족이 이산하게 됨으로써 물질적 결핍과 그로 인한 고난 역시 가중되어 도입부에서 화려하게 제시된 명문가의 후예라는 언급에 전혀 걸맞지 않은 비극적 상황이 빚어지고 만다.¹⁶⁾

한편, 이들의 가부장적 자질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심, 조정, 홍무는 천자에게 직간을 아뢰거나 충신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던 모습과는 다른 이중성을 드러낸다. 유심은 유배 도중 굴원이 빠져 죽은 곳을 지나다가 충동적으로 유서를 써놓고 자결하려 한다. 영거사의 만류로 뜻을 돌이키기는 하지만 어린 자식과 부인을 남겨놓고 온 한 가문의 수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모습이라 하겠다.¹⁷⁾ 홍계월의 부친 홍무는 이와 상반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조 없고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도적의 무리에 가담하였다가 도적이 소탕된 뒤 전임 대신이 지조를 잃는 행위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절도(絶島)에 유배당하고 만다.¹⁸⁾ 홍무의 경우 부인과 자식에 대한 책무를 의식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길을 택하기는 하였으나 충신으로서의 명예를 저버리는 실책을 범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처할

16) '기아 체핍의 유무'로 소설 유형 간 차이를 언급한 김종철의 선행연구가 이에 대한 좋은 예시를 제공한다. 이 경우에는 19세기의 한문장편소설들이 영웅의 일생 유형을 계승하면서도 수용 계층의 현실적 경험과의 불일치로 인해 전승 유형구조에서 분리 모티프가 탈락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용 계층의 경험과 작중 내용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19세기 중반기 장편영웅소설의 한양상-옥수기, 옥루몽, 옥미당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40(일지사, 1985), 96-97쪽.

17) 비록 유심이 굴원의 충심을 본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러지기는 하지만 굴원의 경우 유심이 처한 것보다 훨씬 막다른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둘을 동일시하기는 힘들다. 굴원은 충정을 다해 모시던 회왕에게 버림받고 유배를 갔다가 회왕이 진의 포로가 되어 객사한 후 그 큰아들 경양왕이 즉위하자 다시 정계로 돌아왔다. 그러나 회왕을 객사하게 한 자란의 죄를 고하다가 모함을 받아 다시 강남으로 쫓겨나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먹라수에 투신 자결하였다. 이처럼 굴원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충정을 아뢰었으나 왕들이 대를 이어 간신의 말을 따르며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며 세상을 등졌으므로 유심이 처음 유배 가는 길에 쉽게 죽음을 감행하려 하는 태도와는 차별화된다. 유심의 행위는 감상적인 패배주의에 가깝다고 하겠다.

18) “상이 그 말을 드르시고 자서이 보시다가 왈 너는 일직 벼살을 하얏스니 차라리 죽을지 언정 도적의 무리에 들니오. 죄를 의논하면 죽일 거시로되 빗일을 생각하여 원찬호노라 호시고 룰관을 명호야 죽시 홍시랑을 벽과도로 덩비하라 호시니라.” (홍계월전)

때마다 의연한 모습 대신 눈물과 한탄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웅의 아버지 조정의 경우는 가장 극단적이다. 그는 간신 이두병이 정권을 잡고 자신을 자주 참소하기에 이르자 약을 먹고 자결해버린다.¹⁹⁾ 이러한 행위는 만조백관 중 유일하게 전란 중 왕을 호종하고 군사를 모아 적군을 물리쳤던 이전의 기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부인 왕씨가 잉태 7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자식에 대한 의무나 가문의 안위를 무시한 채 화가 이르기도 전에 지레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심각한 책임감의 결여를 의미한다. 이처럼 단편군담소설의 가부장들은 정적에게 패하거나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상과는 배치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방한림전〉의 경우 가부장이 유교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관 혹은 조장함으로써 이념적 측면을 현저히 약화시킨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방공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하다가 방관주를 낳아 남자처럼 키운다. 남복(男服)을 입히고, 여공(女工) 대신 시서(詩書)를 가르치며, 친척에게도 아들이라고 속이는 것이다.²⁰⁾ 음양론에 입각한 남녀유별을 근간으로 하는 유교적 가부장제하에서 상층 가문의 가부장이 기본율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의 선조로 제시된 방효유가 천자 앞에서 경서를 강의했던 시강학사이자 유교적 충절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인물임을 고려하면²¹⁾ 방공이 유교적 남녀관의 근본을 무시함으로써 가풍과 어긋나는 일탈을 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문제시된다. 유교적 이념에 근거하여 위상과 정체성을 보장받는 상층 가문의 가부장이 기본 원칙들을 큰 고민 없이 위반하는 것은 방공이 작중에서 상층가의 일원으로 명명된 것과는 달리 이념적 자의식에 강하게 견인되지 않는 담당층의 의식을 대변함을 입증하는 요소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편군담소설의 가부장들의 경우 작품 서두에서는 국문장편소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문가의 후예로서 내외적인

19) “어려히 되미 조정의 정시 살는 허미 간신 두병이 전권하여 도정을 조로 흡쇼하니 승상이 희를 면치 못흐 줄 알고 스스로 약을 먹고 죽으니” 〈조웅전〉

20) “방공 너의 여아의 뜻을 맞췄야 쇼원되로 남복을 지여 입피고 아직 어린고로 여공을 가라치지 안코 오직 시서를 가라친이 [...] 방적슈션을 권흔즉 스스로 폐하니 부모 쏘흔 여의 직모 범인이 안이라 쏘흔 슬히 역이를 굿티여 권치 안코 여복을 나오지 안이호고 친척으로 허야금 아달이라 허단이 불헿허야 문백쇼제 팔세 되미 방공부부 일시의 쌍망흔니” 〈방한림전〉

21) 장시광,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 방한림전』(한국학술정보, 2006), 89-90쪽 참조.

명망을 지닌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상에서는 그런 언술에 부합하지 않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패배주의적인 낙담을 드러내고, 가문 내적으로도 가부장의 부재 상황을 야기함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문의 몰락을 초래하는 한편 유교 이념의 수호자여야 할 가부장이 기본 원칙들을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Ⅲ. 가부장상에 투영된 담당층의 인식 차이

조선의 가부장제는 음양론에 입각하여 남녀의 유별성을 내세우고 이를 통해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체제 질서 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²²⁾ 음양의 논리에 따른 남녀유별은 근본적으로는 차이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역할의 분담과 보완을 도모하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 구분이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남녀의 차별과 가부장 중심의 위계 설정이라는 차등적 질서를 용인하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가부장적 위계질서는 가족 단위를 넘어 국가 단위의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질서의 상징이자 중심점인 가부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²³⁾ 그러나 권한의 부여뿐 아니라 가부장으로서의 의무 역시 요구되었는바 가족구성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가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조항

22) “조선조 가부장제의 위계성은 국가 조직의 단위세포인 가정을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치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행정관리하기 위하여 그 대상에게 주어진 특성으로 간주된다.” 이순형,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유학적 재해석」, 『韓國學報』 71(일지사, 1993), 113쪽.

23) 이광규에 의하면 부계혈연 중심의 가부장제하에서는 가부장의 家督權을 인정하고 있는데 家督權이란 가족 성원을 지배하는 것으로 制止權, 決定權, 敎令權 등을 포함한다(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84, 129-131쪽 참조). 김두헌 역시 가장에게는 공법적 통제권만이 아니라 사법적 통제권도 인정됨으로써 가장이 戶主權, 尊長權, 親權, 宗子權, 家產權을 겸비하고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김두헌, 『한국가족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329-330쪽 참조). 박병호도 妻子나 奴婢가 가부장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죄시하여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반면 가부장이 처자나 노비를 해치는 경우에는 현저히 가벼운 형벌로 다스리거나 아예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을 통해 가부장권이 刑律에 의하여 보장되고 강화되었음을 주장하였다(박병호, 「한국에 있어서의 가부장제의 형성」, 『한일 법학연구』, 한일법학회, 1988, 47-48쪽).

역시 존재했음을 예로 들 수 있다.²⁴⁾

이처럼 막강한 권력과 그에 준하는 의무를 지니고 가족 혹은 가문을 통솔해야 했던 가부장들의 소설적 형상화는 가부장제로 대표되던 당대 체제 질서와 이에 대응하는 담당층의 태도 및 인식 층위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긍정적 가장의 형상 안에서도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목할 만한 차이들이 발견되므로 이 장에서는 그 원인과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긍정적으로 형상화된 가부장들에게서 제일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가족 내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물리적 힘을 행사하기 이전에 술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도덕적 교화에 의해 가족들을 통솔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잘못을 범한 가족구성원들을 엄하게 다스려 벌을 가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들이 가족구성원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교적 인간관에 입각한 군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예(禮)에 따라 올바르게 처신하기 위해 늘 노력하기 때문이다. <가례(家禮)>에서도 가장은 권력으로써 강제하기보다 예(禮)로써 통제하는 도의적인 교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²⁵⁾ 제가(齊家)를 하기 위해 수신(修身)을 우선시했던 사대부들의 삶의 태도를 작품 전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최상층 가문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지배계층으로서 이념적·도덕적 측면에서도 모범을 보여 유교적 이상의 실현에 다가가고자 하는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교적 예론(禮論)에 입각한 인간상의 모범 사례를 가부장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가문과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의 정당성을 천명하는 한편 체제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성인군자의 삶을 추구하는 가부장의 모습을 상층가문을 미화하기 위한 것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듯하다. 물론 주인공 가문의 가부장들이 무흠결의 완성체처럼 이상화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소설 속에 형상화되는 그들의 구체적 행위가 현실에 기반하여 인간을 이해하고 인(仁)과 정의(正義)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자신을 수련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으며, 대를 이어 전개되는 소설 내용을 통해 그러한 인격의 완성이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반성적 실천

24) 이순형, 앞의 논문, 114쪽.

25) 김두현, 앞의 책, 330쪽.

속에서 달성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층가문으로서의 기득권을 유지, 확장시키려는 담당층의 욕망 이면에는 그에 준하는 노력들과 그러한 노력 속에 이루어낸 전통의 계승의식 역시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학적 세계관의 구현에 강하게 견인되어 있는 담당층의 의식이 문면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²⁶⁾, 이러한 소설의 담당층이 작품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지배이념의 현실적 구현에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부장제를 통해 이를 집약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이 소설들이 상층의 향유물이면서 동시에 여성 독자들의 향유물로서 여성적 친연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문장편소설이 상층 가문의 확대와 번영을 이야기하면서도 ‘규방’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서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²⁷⁾ 또한 소설의 창작에 있어서도 여성 작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²⁸⁾ 이 소설들은 상층의 가문 중심적 사고와 유교적 지배 이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도 여성적 친연성으로 인해 유교적 가부장제의 억압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드러내는 한편 인물이 현실 속에서 대면하게 되는 구체적 정황과 상대적 입장들을 형상화함으로써 인간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문

26) “조선시대 도학은 성리학적 세계관의 현실적용을 지향하는 실천철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성리학의 우주 및 인성론에 내재한 도덕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대의명분에 부합하는 정당한 실천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다.” 설석규, 『조선중기 사림의 도학과 정치철학』(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37쪽.

27) 임형택이 ‘규방소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래(「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 록〉」,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국문소설, 특히 국문장편소설이 ‘규방’의 여성들과 친연성을 보이는 가운데 여성적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이 다각적으로 논의되어왔으며,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송성욱, 「명주기봉에 나타난 규방에 대한 관심」, 『고전문학연구』 7(한국고전문학회, 1992); 이지하,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 이데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이지하, 「고전문학소설과 여성의 효의식-〈유효공선행록〉과 〈옥월재합기연〉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이승복,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 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장시광,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부부갈등의 성격과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7(동양고전학회, 2007); 최기숙, 「〈현씨양옹생린기〉에 나타난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현경문-주소지” 부부 관련 서사분석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8)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태학사, 1998); 한길연, 「〈백계양문선행록〉의 작가와 그 주변-전주이씨 가문 여성의 대하소설 창작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7(한국고전문학회, 2005).

장편소설의 가부장들이 이념적이고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교화를 통해 가족을 통솔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자상하고도 다정다감한 모습들로 형상화되는 데에는 여성적 친연성에서 기인하는 위와 같은 특징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단편군담소설은 이념적 실체가 많이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 소설들의 가부장 역시 충효열에 입각한 유교 이념의 교두보임을 자처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탓에 그들이 신봉하는 이념의 실체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세대명문가라고 서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침에 따라 취약함을 드러내는 가문의 위상과 그 가문의 수장으로서 가부장이 보이는 정치적 패배나 정신적 나약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문장편소설의 확고한 입지와 그에 기반한 신념과는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방한립전〉의 경우처럼 가부장이 남녀유별의 내외법을 대수롭지 않게 위반함으로써 유교 이념의 근간을 부정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이상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태도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표면적 언술과는 달리 가부장의 행위나 작품 내용의 실상이 유교적 이상의 구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편군담소설의 경우 수신(修身)을 통해 제가(齊家)를 이루고 이를 치국(治國)의 기틀로 삼고자 하는 국문장편소설과는 다른 지향을 보인다. 단편군담소설 역시 유교 이념에 입각한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중요 화두로 삼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수양의 과정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인공의 영웅성에 입각한 결과적 성취가 더 강조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서의 이념적 엄정성이나 일관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이 소설의 담당층이 그러한 이념적 자의식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계층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즉, 지배층의 일원으로서 유교이념의 구현에 강한 자의식을 지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책무를 지닌 계층이 아니라 집권층의 권리에 대해서는 동경하나²⁹⁾ 이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책무 등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계층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이에 소설에 형상화된 가부장의 모습을 통해 그 정치적 위상을 좀

29) 이 부분에서 유교적 이념과 이에 기반한 지배세력에 대해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작품들 과도 구별된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담당층의 의식과 비교해볼 필요가 제기된다. 먼저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가부장들이 집권층 내에서도 변화나 개혁보다는 체제유지를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의 정치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부장이 정치적 부침 없이 계속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씨양옹쌍린기〉와 〈현몽쌍룡기〉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송나라 철종 시절 신법당과 구법당의 대립 속에 주인공 가문이 부침을 겪는 〈옥원재합기연〉과 명나라 영종의 친정(親征) 문제에 연루되어 일시적 실세(失勢)를 경험하는 〈완월회맹연〉의 경우에도 구법당을 지지하고 친정(親征)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개혁적 성향보다는 구질서의 유지를 추구하는 보수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층 지배층으로서의 담당층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인식을 매우 구체적인 정황과 더불어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정치적 대립상을 짚진히 담아내고 있는 〈옥원재합기연〉과 〈완월회맹연〉을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옥원재합기연〉의 경우 가부장 소송이 구법당의 일원으로서 당수인 사마광과 매우 친밀한 가운데 아들 소세경을 사마광 밑에서 수학하게 함으로써 구법당 중심의 당색(黨色)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구법당의 입장을 취하여 신법당에 반대하면서도 신법당의 당수인 왕안석과는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함으로써 공사(公私)를 구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군자당과 소인당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벗어나 어느 당이나 군자와 소인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적인 차원에서나마 상대방의 군자들과 교류하려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이는 조선 중기 이후 사람들이 붕당(朋黨)에 대해 취했던 다양한 입장 중에서 붕당 내부의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여 군자 간의 조제(調劑)를 통한 화평을 지향하던 태도와 유사하다.³¹⁾ 〈완월회맹연〉의 경우 학연, 혈연에서 거대한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벌열가문의 대표적 모습을 보여주는데 토목지변(土木之變)을 둘러

30)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115쪽.

31) 붕당에 대하여 정인홍으로 대표되는 북인계열 학자들은 군자당과 소인당을 철저히 구분하고 소인의 척결을 내세웠는데 이는 훈척정치의 잔재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관련된다. 한편, 유성룡을 중심으로 하는 퇴계학파의 남인계열 학자들은 군자당과 소인당의 이분법적 구별을 지양하고 각 정치세력 내부의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여 각 당의 군자를 발탁함으로써 현실 탄력적인 정국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실석규, 앞의 책, 167-194쪽 참조.

싼 명 영종대의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³²⁾ 황제의 친징(親征)을 주장하는 소인당과 이를 반대하는 군자당의 대립 상황에서 주인공 가문은 친징(親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충간(忠奸)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지양하고 있다. 가부장 정잠은 당파가 다른 것이 파혼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함으로써 사적인 부분에서는 상대당과의 교류를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며 상대당에도 위국충심(爲國忠心)을 지닌 인물이 있음을 인정하여 포용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는 군자당과 소인당을 다층적으로 읽어내려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소설들이 조선 후기의 복잡한 정치 현실을 이분법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이처럼 다수의 국문장편소설이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끌어와 조선의 정치 현실을 그리고 있는데, 그 구체적 정황을 짚히며 묘사하는 가운데 담당층의 정치 인식 역시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³⁴⁾ 요컨대 이 소설들의 경우 당대 정치권에서 실제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정치 현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응책을 고심하는 위치에 있던 담당층이 집권층 사대부들의 정치적 입장을 구체적이면서도 다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가부장으로 대표되는 가문의 정치적 입장과 위상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앞서 살펴본 단편군담소설들의 경우 가부장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요직에 있다가 정쟁에서 패배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가게 됨으로써 몰락하는 경우(유충렬전, 조웅전, 홍계월전), 요직에 있다가 고향에 물러나 은거하는 경우(소대성전), 자신의 대에서는 벼슬에 나가지 못한 경우(방한립전) 등인데, 국문장편소설의 경우에도 가부장이 실세(失勢)하여 유배를 가는 내용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부장의 실세를 단편군담소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작품 초반에 가부장들이

32) 정병설, 「조선 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완월회맹연과 옥원제합기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국문학회 2000).

33)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태학사, 1998), 241-245쪽 참조.

34) 국문장편소설 간에도 구체적인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길연의 『조선 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소명출판, 2009)의 “제4장 가문의 의적 갈등과 정치의식”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반대파에 의해 유배를 가거나 일시적인 실세를 경험하더라도 곧 복귀하여 더 단단한 입지를 굳히는 것으로 그려지거나(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 아예 정권에서 소외되는 적 없이 확고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현씨양웅쌍런기, 현몽쌍룡기) 한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단편군담소설의 가부장들이 정치적 몰락을 겪음으로써 가문의 존립 자체가 위협당하거나 정치권을 떠나게 되는 것과 비교된다. 단편군담소설의 경우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에 의해 가문이 회복되는 작품 말미에 이르기까지 주인공 가문은 지속적인 실세의 상황에 놓이게 되며 정치적 몰락과정도 충신과 간신의 대립이라는 추상적 구도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를 감안할 때 〈유충렬전〉의 유심이 전쟁을 반대하며 화친론을 주장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황제가 토변과 가달의 침입을 친징(親征)하려 하자 유심이 이를 반대하여 기병하지 말 것을 간하다가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³⁵⁾ 이때 유심이 주장하는 바는 강성한 외적을 대적할 만큼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감수하면 국가가 위태로울 뿐 아니라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는 것이다.³⁶⁾ 이 부분 역시 더 이상 구체화되지 않아 유심의 정치적 입장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³⁷⁾ 외적의 침입에 대하여 명분론보다는 실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이 유형의 소설들이 전쟁을 소재로 삼아 주인공의 활약상과 성공담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쟁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폐해를 지적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막아보고자 하는 의식을 드러내는 점이 흥미롭

35) 이 사건은 명나라 시절에 영종이 몽골의 오이라트가 침략해 오자 친히 정벌에 나섰다 오이라트에 포로로 잡힌 토목지변을 소재로 삼은 듯하나 이후 작품 내용이 역사적 사건과 부합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36)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지름 갖고 드난 퇴끼를 노치미라. 훗날 식알리 친근지중을 건디릿가. ㄱ런훗 빅성 목심 빅니 사장 고훈이 되면 근들 안이 적악이요. 복원황상은 기병치 마옵소서.” 〈유충렬전〉

37) 이 소설의 내용을 병자호란과 연관지어 정한담의 주전론과 유심의 주화론을 조선 조정의 척화파와 주화파의 대립으로 본 견해도 있으나(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159-160쪽 참조), 유심이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여 일시적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아들 유충렬이 전쟁을 통해 호국을 무찌르고 명나라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을 볼 때 유심과 그 가문의 정치적 입장을 적극적인 주화론으로 해석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서대석 교수 역시 “이와 같은 주화 긍정 의식은 순간적이었고, 이것이 곧 친청의식은 아니었다”는 언급을 덧붙이고 있다(위의 책, 164쪽)

다. 이는 전쟁 영웅과 같이 예외적인 공을 세우지 않고서는 출세하기 어려운 계층의 소망이 전쟁 영웅의 성공담을 통해 투영된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전쟁의 피해를 체감하는 계층으로서의 경험과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조선 후기 사회에서 명나라 영종의 친정(親征)을 주장하여 천자가 적군의 포로가 되는 국난을 야기한 왕진 등을 간신배로 규정하는 입장이 주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작품 속 유심의 입장은 당대의 주류적 견해에 따라 주인공 가문을 충신화하려는 관습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편군담소설 유형의 담당층은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정치적 대립구도보다는 전쟁과 같이 직접적인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서의 경험을 작품화하기는 어려운 위치에서 충성스러운 인물들의 영웅적 활약이라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요소에 기대어 출세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가부장의 위상 차이는 소설 담당층의 국가관 내지는 정권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부장제하에서 가부장 중심의 가족제도가 황제 중심의 국가제도의 기초 단위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가부장의 위상을 통해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위상을 유추해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주인공 가문의 세력이 막강하고 가부장의 권위가 확고한 경우 국가나 황실 역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려질 것임을 가정할 수 있는바 작품 내용을 통해 그 실상을 확인하고 이면적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고찰한 소설들의 시공간적 배경은 모두 중국의 송나라나 명나라 시절로 설정되어 있다.³⁸⁾ 작품 속에 형상화되는 시대적 배경은 주로 간신과 충신의 대립 속에 황제가 간신배에게 미혹되어 있거나 변방의 외적들이 강성해져 국경을 침범함으로써 국가가 혼란스럽다는 공통점을 드러낸다. 이는 내외적 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주인공들의 활약을 보여주기 위한 소설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나 황실의 위기 상황을 그리는 태도 면에서는 국문장편소설과 단편군담소설이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황제의 일시적 판단착오로 간신배들이 세력을 얻거나 외적의 침입으로 조정에

38) 〈현씨양옹쌍링기〉는 송나라 인종 시절, 〈현몽쌍룡기〉는 송나라 진종 시절, 〈옥원제합기연〉은 송나라 신종 시절, 〈완월회맹연〉은 명나라 영종 시절, 〈유충렬전〉은 명나라 영종 시절, 〈조웅전〉은 송나라 문황제 시절, 〈홍계월전〉은 명나라 현종 시절, 〈방한림전〉은 명나라 무종 시절이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황실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단편군담소설의 경우 황제가 간신배의 농간에 휘말려 천자의 자리를 위협받거나 외적의 침입에 의해 황실이 와해되고 황제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모습이 자주 형상화된다. 이와 같은 차이를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완월회맹연〉과 〈유충렬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 두 작품 모두 명나라 영종조에 일어난 토목지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 가문의 주요 인물들이 오이라트의 침입에 영종의 친정(親政)을 주장하는 간신배들에 맞서다 화를 당하는 것도 비슷하다.³⁹⁾ 그러나 〈완월회맹연〉이 역사적 사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영종이 오이라트의 포로가 되었다 복귀하는 사건과 그 사이 보위에 올랐던 경태제를 폐위하고 다시 황제에 등극하는 사건을 주인공 일가 구성원들의 활약상과 결부시켜 서사화하는 반면 〈유충렬전〉의 경우 황제가 오이라트의 포로가 되는 내용 대신 정한담 일파가 반역을 도모하여 황제가 위기에 처하는 것으로 그려 역사적 사건을 차용하기는 하되 사실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⁴⁰⁾ 전자가 작품의 초기에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한 후 더욱 견고해진 왕권과 주인공 가문의 번영을 그리는 가운데 안정적인 체제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면 후자는 간신 일파에 의해 황제가 두 번씩이나 궁을 버리고 피난하는 상황과 백사장에서 용포자락을 뜯어 혈서로 향서를 쓰라고 협박을 받는 상황들이 작품 후반부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실추된 왕권과 황실의 미약함을 상세히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단편군담소설에서 국가의 가부장에 해당하는 황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왕권의 위기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혼란과 붕괴 위험을 야기하는 것은 주인공 가문의 가부장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가문이 몰락하는 것과 이미지가 중첩된다.⁴¹⁾ 즉,

39) 〈완월회맹연〉의 경우 가부장 정잠의 종형제인 정흠이 이 일로 賜死되고 그 외 다수 인물이 조정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정잠과 정삼 형제도 이 일을 계기로 낙향하게 된다. 〈유충렬전〉의 경우에는 유심이 유배를 당한다.

40)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민감성 역시 담당층의 의식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상층 사대부들이 역사적 사실을 중시한 반면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무관심이 나 무지 등으로 인해 이에 덜 구속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1) 엄태웅도 〈방한립전〉을 통해 국가가 오랑캐의 침입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것은 가부장의 근본적 부재로 인해 가부장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엄태웅, 「〈방한립전〉에 나타난 가부장의 부재와 재현의 양상」, 『우리어문연구』 39(우리어문학회, 2011), 105쪽.

가부장의 위상이 약화되어 있는 소설들의 경우 가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구심점 없이 위태로운 현실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는 가부장제와 이에 기반한 체제 질서에 대한 담당층의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확고한 가부장상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면서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문장편소설 담당층의 인식과는 분명 층위가 다른 것이라고 하겠다. 단편군담소설들이 비록 주인공의 성공을 통해 가문의 재건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올바른 가상상과 국가상을 현실화하여 체제 안정적인 지향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인공의 영웅적 행위 이면에 지배체제의 불안정하고 모순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확고한 가부장상을 제시하고 이들에 의해 유교적 체제 질서 역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국문장편소설과 명실상부(名實相符)하지 않는 가부장상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면서 체제와 이념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는 충효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이에 크게 구속되지 않거나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는⁴²⁾ 단편군담소설의 경우 긍정적인 가부장상을 그리고 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담당층의 의식과 그에 기반한 문학적 형상화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국문장편소설과 단편군담소설이 상층의 유력한 가문을 중심으로 주인공의 활약상을 그린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형상화에서는 주목할 만한 차이점들을 지니며 이는 소설 담당층의 기반 차이와 그에서 비롯되는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문장편소설의 담당층의 경우 유교적 봉건체제 내의 기득권층으로서 체제 내적 질서 유지에 대한 보수성을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 담당층이 여성이었다는 점으로 인해 상황과 관계 속에서 열린 시각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국문장편소설의 가부장들이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자상하고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은 당대 상층 여성들이 희망하였던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42) 단편군담소설의 주인공들은 노골적으로 황제를 비난하면서 국가적 권위에 회의를 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상소 등을 통해 충음을 아뢰기 위해 황제나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담당층의 예법 습득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체제·이념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에 입각한 가부장상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단편군담소설의 경우 담당층이 최상층의 일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소설의 작가층으로 몰락양반층과 관련된 직업적 작가군이 언급되어온 것처럼⁴³⁾ 소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할 가부장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등을 통해 볼 때 상층의 삶이나 정치적 경험이 없는 계층의 산물임이 재확인된다. 유교적 봉건 지배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핵심을 차지하는 상층의 삶을 동경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담당층 역시 체제 수호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허약한 왕권과 간신배에 휘둘리는 정치권에 대해 일정한 비판 의식을 드러냄으로써 미약하나마 지배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노출하기도 한다. 이는 이 소설의 담당층이 기득권층에 속하지 않은 계층이며 그로 인해 이념적·제도적으로 비판적 거리를 형성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판 의식이 좀 더 예각화되지 못한 채 체제 질서를 수호하는 주인공의 승리담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락적인 차원에서 흥미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담당층의 대중적 속성과 그에 바탕을 둔 소설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IV. 맺음말

고전소설 속에 그려지는 가부장의 형상은 꽤 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경우부터 권위가 실추된 경우까지 다양한 가부장상이 등장하는 가운데 권위가 긍정되는 가부장의 경우에도 작품 속에 형상화되는 구체적 모습은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가부장의 위상과 실제 모습 여부, 그러한 가부장을 통해 소설 담당층이 그리고자 하는 바를 살펴 가부장적 이념의 침윤 정도와 담당층의 인식 차이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조선조 사회는 유교적 사유에 기반한 강력한 가부장적 질서를 신봉하고 있었다. 한 가정 혹은 가문 내에서 가부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위계질서

43) 이상택 외, 『한국고전소설의 세계』(돌베개, 2005), 92-96쪽.

는 효(孝)라는 윤리를 절대적 지주로 삼아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것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면 충(忠)이라는 덕목하에 ‘왕-신하-백성’으로 이어지는 종적 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가부장적 통치 원리는 유교적 이념에 기반을 둔 사대부의 역할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대표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집안의 가부장으로서는 제가(齊家)를 바로하는 것은 곧 세계를 도모하는 일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 속에 형상화된 가부장의 위상과 행위 등은 담당층의 현실 조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념적 지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고전소설의 계층적 다양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고전소설 유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가부장상을 제시한다. 상층 별얼 가문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군의 경우 가문의 주재자로서 막강한 권위와 그에 걸맞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가부장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들은 능력 면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 측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인물로서 뚜렷한 정치적 입장을 지니고 국가와 가문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가부장의 형상화 속에는 유교 이념에 대한 강한 신뢰와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으며, 지배 이념을 바탕으로 한 기득권의 유지, 확대를 지향하는 의식이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소설들의 가부장상이 이념적 차원에서 미화됨으로써 현실성을 결여한 채 추상적으로 그려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상당수의 국문장편소설 속에서 가부장들이 강한 부성애를 표출할 뿐 아니라 가문구성원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자상하고 세심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소설들이 지배 이념에 강하게 경도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면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는 가운데 현실적 차원의 문제들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준다.

단편군담소설의 경우 가부장의 형상화가 추상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 소설 유형에서 가부장은 작품 초반에 짧게 언급된 후 죽는 것으로 처리되거나 작품 말미에 유배지에서 풀려나 가문과 정치권에 복귀하는 것으로 그려질 뿐이다. 이 때문에 작품의 서두에서 묘사하는 이들의 우수한 혈통과 재능, 인품 등이 구체적 현실과 결부되지 못하고 관행적

언술의 차원에 머물고 만다. 이는 힘 있는 가부장과 그를 기반으로 한 가문의 번영을 꿈꾸면서도 권위 있는 가부장의 실상을 그려내지 못하는 담당층의 실존과 인식의 한계 및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 유형의 가부장들이 유교적 이념이나 체제에 크게 구속받지 않고 때로는 이를 위반하기도 하는 모습은 상층 경험의 유무나 정치적 인식의 불철저함이라는 결여적 관점과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 유교적 가부장제와 이에 기반한 지배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간접적으로나마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파악되는 체제 지향적 성격과는 달리 내적으로는 그와 상반된 인식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본격적으로 비판적 차원으로 상승시키지는 못하는 애매하고도 절충적인 입장이 이 소설들의 특징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이 유형이 유통되던 상업적 향유의 맥락과 담당층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 김은아, 「전근대 중국의 가족공산제와 가부장의 권능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12, 한양법학회, 2001, 253-267쪽.
- 김종철, 「19세기 중반기 장편영웅소설의 한 양상-옥수기, 옥루몽, 옥미당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40, 일지사, 1985, 88-108쪽.
- 박병호,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한국학보』 2, 일지사, 1976, 67-93쪽.
- _____, 「한국에 있어서의 가부장제의 형성」. 『한일 법학연구』, 한일법학회, 1988, 43-54쪽.
- 서대석, 『근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 설석규, 『조선 중기 사림의 도학과 정치철학』.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 송성욱, 「명주기봉에 나타난 규방에 대한 관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 1992, 378-404쪽.
- 엄태웅, 「〈방한림전〉에 나타난 가부장의 부재와 재현의 양상」.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89-117쪽.
-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84.
- 이순형,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유학적 재해석」. 『韓國學報』 71, 일지사, 1993, 92-119쪽.
- 이승복,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 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283-322쪽.
-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 이데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137-168쪽.
- _____,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유효공선행록〉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71-199쪽.
-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103-176쪽.
- 장시광,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 방한림전』. 한국학술정보, 2006.
- _____, 「〈성현공숙열기〉에 나타난 부부갈등의 성격과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2007, 7-37쪽.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 _____, 「조선 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 국문학회, 2000, 231-259쪽.
- 조혜정,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 지성사, 1988.
- 최기숙,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 - “현경문-주소저” 부부 관련 서사분석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301-337쪽.

한길연, 「〈백계양문선행록〉의 작가와 그 주변-전주이씨 가문 여성의 대하소설 창작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329-361쪽.

_____, 『조선 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2009.

국 문 요 약

고전소설 중에서 상층지향적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긍정적 가부장상을 형상화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국문장편소설과 단편군담소설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소설 유형은 표면적으로 체제 옹호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가부장상의 형상화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상이점들이 포착되는바 이를 통해 두 소설 유형 담당층의 인식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능력과 인품 등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이상적 가부장상을 제시하며 집권층 사대부들의 정치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러한 가부장의 형상화 속에는 유교 이념에 대한 강한 신뢰와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으며, 지배 이념을 바탕으로 한 기득권의 유지와 확대를 지향하는 의식이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이 이념적 차원에서 미화됨으로써 현실성을 결여한 채 추상적으로 그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속의 자상하고 세심한 인물로 육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교에 입각한 지배 이념에 대한 경도 이면에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고 현실적 차원의 문제들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는 담당층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단편군담소설의 경우 가부장의 형상화가 추상적 차원에 머물며 권위 있는 가부장상에 어울리는 행위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작품 초반에 제시한 위상과 명실(名實)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가부장들이 유교적 이념이나 체제에 크게 구속받지 않고 때로는 이를 위반하기도 한다. 이는 힘 있는 가부장과 그를 기반으로 한 가문의 번영을 꿈꾸면서도 권위 있는 가부장의 실상을 그려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제와 이에 기반한 지배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노출하는 담당층의 실존과 인식의 한계 및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투고일 2014. 9. 23.

심사일 2014. 11. 5.

게재 확정일 2014. 11. 26.

주제어(keyword) 가부장(patriarch), 유교적 가부장제(confucian patriarchy), 긍정적 가부장상(positive image of patriarch), 국문장편소설(Korean classical long novel), 단편군담소설(war novel), 담당층의 인식(recognition of charging group)

Abstracts

A Study on Differing Perception of Charging group through the Embodiment of Positive Patriarch in the Korean Classical Novel
Lee, Jee-ha

Among the Korean classical novels, there are Korean classical long novel and War novel as the representative type, which expose inclination for the upper level and embody positive patriarch as well. The types of these two novels have the same point showing a tendency to promote the regime. However, we can find meaningful dissimilarities when examine the embodiment of concrete patriarch. Through this we can estimate differing perception of charging group for the types of these two novels.

In the case of Korean classical long novel, the image of ideal patriarch with exemplary ability and personality is presented, and the political position of ruling clique high officials is concretely exposed. In this embodiment of patriarch, strong trust and self-confidence about Confucian ideology are implied, also the consciousness, which intends to maintain and extend vested rights based on ruling ideology, seems to be related. However,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point which the ruling clique high officials are not only described abstractly lacking of actuality, which are derived from glamorization in the